

1회용품 줄이기 효과 미미... '플라스틱 왕국' 언제까지

광주·전남 연 폐트병 1만여t 배출 속 카페 등 절반 1회용품 사용 여전히 세계 환경의 날 맞아 새 정부 탈플라스틱 정책 어떻게 펼칠지 관심 집중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새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 지 주목된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1회용품 규제를 유예하고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선택하는 등 후퇴한 플라스틱 정책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광주·전남의 플라스틱 사용 자체 정책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광주의 폐합성수지류 발생량은 비닐류 17379 t, 스티로폼 등 발포수지류 1961 t, 페트병 7726 t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발생량은 비닐류가 5076 t, 발포수지류 1056 t, 페트병이 4199 t이었다.

광주에서만 하루 47.6 t의 비닐이 쓰레기로 배출되고 발포수지류는 5.3 t 이나오고 페트병도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21 t에 달한다는 얘기가.

당장, 광주시의 '광주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6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의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벌칙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일회용품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시청사 내 1회용품 반입 금지, 사업 공고·과업지시서에 1회용품 사용 금지문구 기재, 1회용품 구입예산 환수 조치, 평가항목에 다회용기 활용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환경부도 지난 2023년 11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다 유예하는 대신, 24개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1회용품 감량을 자체적으로 시행키로 하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24년 6월, 광주 카페·패스트푸드점 대상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이행 여부 조사결과 69곳 중 34곳(49%)이 여전히 컵, 빨대, 스푼 등 1회용품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포장 시 1회용 컵 사용 비율은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인 컵(텀블러) 사용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및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환경단체는 이같은 점을 감안, 새로운 정부에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환경운동연합은 4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환경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또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동구 계림동에서 '푸른길 작은 축제'를 열고 다양한 환경 체험 부스를 연다.

행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충전기, 이어폰 등 소형전자폐기물을 수거하고,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고물과 보물사야', 하천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알쏭달쏭 수달퀴즈' 등이 진행된다.

또 기후위기시대 채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채식 먹거리 나눔', 천연비료와 토종씨앗을 알리는 '도시농부의 토종씨앗' 부스 등도 열린다.

/김진수 기자 jinggi@kwangju.co.kr



6월 모의평가 집중 또 집중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4일 광주시 서구 서석고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병내 남구청장 약속대로 '셔플 댄스' 뚝다

광주 자치구 투표율 1위 퍼포먼스

광주시 남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을 기념해 김병내 남구청장이 '셔플 댄스' (샤진)를 뚝다.

김 청장은 4일 자신의 개인 SNS에 셔플댄스를 추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전국 69개 자치구 중 광주 남구가 투표율 84.6%로 1위, 시군구중 전국 7위를 달성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남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글을 썼다.

대선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자치구 단체장들은 다양한 투표율 올리기 공약을 세웠다. 김 청장은 대선 전날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구가 광주 자치구 중 최다 득표를 기록하면 셔플댄스를 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강 시장은 광주지역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92.4%를 넘어 92.5%를 기록할 경우, 머리를 파란색으로 염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강 시

장은 지난달 26일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이끌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왔다"며 "투표율 92.5%를 넘기면 파란 머리로 변신해 시민들과 기쁨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광주 투표율이 83.9%로 전국 1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역대 최고치인 92.4%를 넘지 못하면서 강 시장의 파란색 머리 염색은 보지 못하게 됐다.

문인 북구청장은 북구 지역 투표율이 광주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면 주민들이 선정한 공약을 직접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 후보로는 북구 물놀이장 개장식에서 물풍선 맞기, 북구민의 날 가을밤 음악회에서 가수 장민호 노래 부르기, 6월 열린남의 날에 '부끄부끄' 인형탈 착용 후 참석, 6월 21일 하이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 퍼포먼스 등이 제시됐다.

북구는 투표율 83.9%로 광주 5개 자치단체 가운데 남구와 동구(84%)에 이어 3위를 기록해



문 청장의 공약 이행은 볼 수 없게 됐다. 다만, 투표자수로 보면 북구가 30만4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27만929명), 서구(20만340명), 남구(14만922명), 동구(7만 750명) 순이다.

/김진수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일본 관광객 입맛 사로잡은 전남도 미식여행

순천 한정식·강진 오리 요리 등 40여명 참여 미식투어 큰 호응

전남도가 일본 요리연구가와 함께 선보인 전남도 미식여행 상품이 일본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1~4일까지 일본 요리연구가가 신카이 미야코를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일본 여행사인 '삼진트래블'과 국내 여행사 '남해관광'과 미식 투어를 진행했다.

전남도 미식여행은 일본 관광객 40여명이 참여해 순천 한정식과 강진 오리 요리, 고흥 한우·해산물 요리, 여수 서대화·꽃게 요리를 맛봤다.

일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음식이라는 점에서 '맛'에서는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전남도는 미식 여행을 기획했다.

미식 여행 코스는 신카이 미야코가 지난해 일본 현지 여행사가 진행한 팸투어에서 직접 맛보고 경험한 요리들로 구성됐다. 신카이 미야코는 일본에

서 한국요리 연구가로 활동 중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음식 전문가다.

전남도 미식여행은 맛집 투어 외에도 강진 쌍화차 체험과 여수 주조장 견학, 고흥 농수특산물 전시장 방문 등이 포함되면서 일본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대다수 전남 첫방문인 일본 관광객들은 미식의 고장인 전남에서 맛본 음식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남겼다. 신카이 미야코는 "전남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미식 체험 상품이 일본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미식 여행의 높은 호응을 감안, 올해 하반기 개최하는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연계한 여행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다양한 미식 상품을 활용한 여행상품 기획을 통해 전 세계에 케이(K)-미식의 원류라는 전남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나주·해남 잇단 온열질환자...주말도 무더울 듯

최근 광주·전남에 한낮 기온 25도를 넘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5월 전남에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해남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시께 해남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나오던 A씨(여·85)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의 체온은 36.7도로 정상 범위였지만, '열

탈진'으로 분류됐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7시께 나주시 남평에서 80대 여성 B씨가 눈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당시 39.6도를 넘었고 열탈진 판정을 받았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일 빠른 지난 달 15일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며 오는 9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말 동안 광주·전남에는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5일 아침최저기온은 11~17도, 낮최고기온은 25~29도를 보이고, 6일은 아침최저기온은 14~18도, 낮최고기온은 25~29도에 분포할 것으로 예보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한 사람의 보험비교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스 해볼래?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NCT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p>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p> <p>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p>	<p>각 보험회사 대표번호</p> <p>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p>
--	--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